



TUDOR

# 튜더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브론즈 부티크 에디션

튜더(TUDOR)는 인기 모델인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Black Bay Fifty-Eight)의 브론즈 버전을 선보인다. 이 제품은 손쉽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새 클라스프와 브론즈 소재의 브레슬릿을 갖춘 첫 번째 모델이다.

브론즈 사용에 대한 확신을 얻은 튜더는, 이번에 토클 브론즈 룩까지 채택하며 특유의 산화(파티나) 현상이 특징인 이 상징적인 소재를 과감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다. 절은 ‘브론즈-브라운’ 톤을 베이스로한 새로운 색감이 다이얼과 베젤에 적용되었고, 이 시계의 모든 디테일에는 해군으로부터 받은 영감이 담겨 있다. 돋보이는 디자인의 이 타임피스는, 전 세계 50여개 부티크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며, MT5400 캘리버는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브론즈 모델의 고성능을 자랑한다.





3, 6, 9시 방향의 아라비아  
숫자와 시각 표식이 있는  
그라데이션된 매트  
'브라운-브론즈' 디자인



1969년에 출시된 투더  
다이버 워치의 상징 중 하나인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 시침'  
스위스 제조 A 등급의  
슈퍼-루미노바 형광 물질 코팅



스위스 공식クロノ미터 인증 기관(COSC)  
인증을 받은 자체 제작 칼리버 **MT5400**,  
실리콘 헤어스프링과 70시간의 파워리저브



착용 환경에 따라 특유의 파티나  
(산화 현상)가 나타나는 새틴-브러시된  
**직경 39mm 브론즈 케이스**



손쉽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T-Fit'  
클라스프가 장착된 **브론즈 브레슬릿**과  
'브론즈-브라운' 자카드 패브릭  
스트랩 포함



**양도 가능한 5년의 보증**,  
별도의 등록 또는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이 요구되지 않음



## 살아있는 케이스

새로운 블랙 베이 피피티-에잇의 핵심은, 옛 선박이나 심해 잠수 장비에 사용된 브론즈의 심미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39mm 브론즈 케이스다. 더욱이 1950년대 후반 투더 다이버 시계의 특징도 담고 있다. 특히, 1958년에 출시된 투더 최초의 200미터(660피트) 방수 시계인 ‘빅 크라운(레퍼런스 7924)’의 특징을 담고 있다.

‘살아있는’ 금속이라 불리는 고성능 알루미늄 브론즈 합금은, 특히 군함의 프로펠러와 같이 물속에서 뛰어난 내부식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품 제조에 사용된다. 그리고, 시계 착용 환경에 따라 시계 케이스에 은은한 특유의 파티나(산화) 현상이 나타난다. 전통을 존중하며, 동시에 탁월한 기능을 갖춘 디자인이 돋보이는 블랙 베이 브론즈는 케이스 전체가 새틴 브러시되어 파티나 현상이 균일하게 생기도록 했다.

동심원으로 음영 처리된 매트한 ‘브라운-브론즈’ 돔드 다이얼과 핸즈 및 인덱스처럼 골드 악센트가 돋보이는 베젤이 이 시계의 얼굴을 완성한다. 풍부한 파티나(산화) 현상은 7대양의 거친 파도와 맞서는 사람들과 그들의 선상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한 듯한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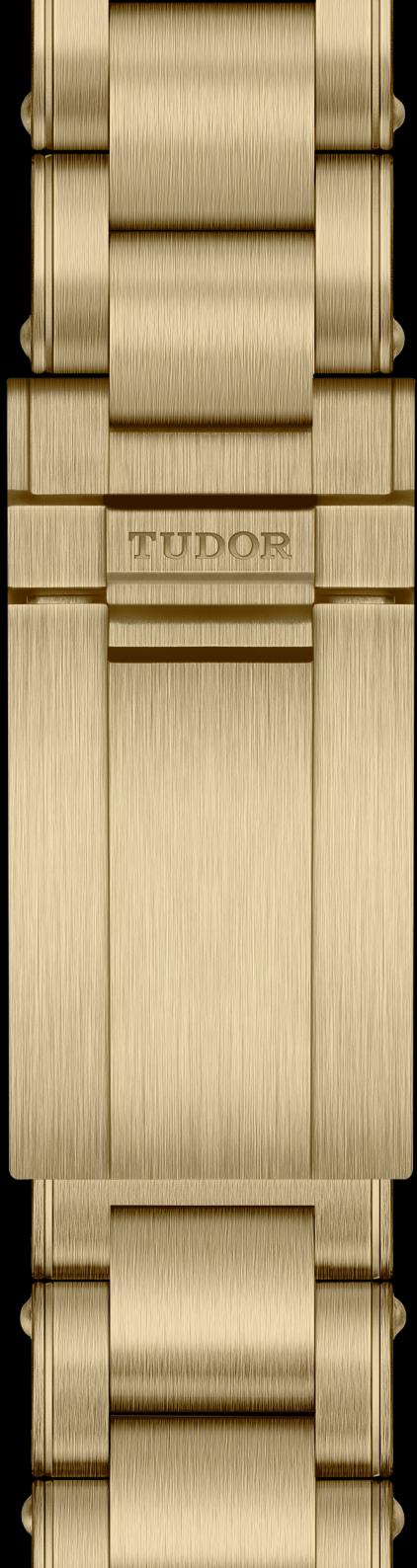


## 튜더 브론즈의 기원

브론즈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다른 성질을 가진 소재와의 합금으로서, 이 시계는 소재가 남다른 만큼 케이스 제작에 필요한 가공 기술도 특별하다. 일단 알루미늄 브론즈 합금이 완성되면 바 형태로 만들어진 후, 몇 센티미터 길이의 작은 실린더 덩어리로 커팅된다. 그리고 고온으로 가열된 후, 마찰 프레스에서 수톤의 압력으로 하나 하나 스템핑된다. 이 과정은 커팅된 실린더가 용광로에서 나오는 즉시 이루어지며, 시계의 미들 케이스로 대략적인 모양을 갖추어 간다.

이 후에도, 브론즈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40단계 이상의 추가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연속적인 가공 공정을 통해 최종 형태를 만들고, 세부 작업을 통해 나사 깍기, 드릴링, 피니시, 혹은 시계의 최종 외관에 필요한 기계 작업이나 수작업이 요구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브론즈는 환경에 따라 외관이 빠르게 파티나(산화 현상)가 나타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브론즈의 모든 제조 과정, 조립, 최종 테스트는 더욱 꼼꼼하게 진행된다. 모든 수작업은 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브론즈만의 작업 과정을 따라야 하는데, 특히 방수 테스트의 경우 케이스 표면에 파티나가 생기지 않도록 모든 시계를 완벽하게 건조시킨다.





## 새로운 브론즈 브레슬릿

튜더는 수 년에 걸쳐 브론즈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브론즈는 브레슬릿까지 브론즈가 사용된 첫 번째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 튜더 시계의 특징 중 하나인 리벳 형태의 새틴-브러시된 링크는 케이스와 조화를 이루며, 모든 면에서 고르게 파티나 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새로운 브론즈 클라스프 역시도 새틴-브러시되었으며, 새 디자인의 클라스프 커버와 손쉽게 길이 조절이 가능한 튜더의 'T-Fit' 시스템이 토플 브론즈 룩을 완성한다. 'T-Fit'은 별도의 도구 없이 쉽게 5단계(8m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

## 무상 제공되는 패브릭 스트랩

브랜드의 해군 헤리티지에 대한 디자인적인 경의를 표하며, 투더는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브론즈 모델에 패브릭 스트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투더는 시계의 역사를 파악하여 최신 모델에 재해석해왔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해군은 브레슬릿 없이 시계를 공급받아, 핸드메이드 혹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스트랩을 장착하여 사용했다. 그 중 하나가, 특정 기간 동안 다이버 시계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브랜드 아카이브에 보관되고 있는 프랑스군 구조용 낙하산에서 사용된 탄성있는 끈으로 만들어진 스트랩이다. ‘브론즈-브라운’ 직조 스트랩 중앙의 노란색 라이닝은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했던 이 유물을 상징한다.

투더는 2010년 업계 최초로 제품에 패브릭 스트랩을 포함한 시계 브랜드 중 하나로, 오늘날 패브릭 스트랩은 투더의 상징 중 하나이다. 프랑스 생테이엔 지역에 위치한 줄리앙 포레(Julien Faure)사에서 19세기부터 전해져 오는 자카드 방식으로 짠 패브릭 스트랩은, 매력적인 동시에 뛰어난 착용감을 선사한다. 2020년, 투더는 150년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 기업인 줄리앙 포레와의 파트너십 10주년을 기념했다. 두 회사는 줄리앙 포레가 제작한 패브릭 스트랩을 브랜드 최초로 장착한 헤리티지 크로노(Heritage Chrono)가 2010년 출시 되기 전부터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두 회사는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견고한 협업 관계를 이어온 것이다.



# 자체 제작 칼리버 MT5400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브론즈에 장착된 자체 제작 칼리버 MT5400은 시, 분, 초를 표시하며, 튜더 자체 제작 칼리버 고유의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 텡스텐 모노블럭에 장착된 오픈워크 로터는 샌드 블라스트 디테일이 가미된 새틴-브러시되어 있으며, 브릿지와 메인 플레이트는 샌드-블라스트 및 폴리싱 처리가 교차되고 레이저로 각인된 무늬가 있다.

또한, 칼리버 MT5400의 구조는 2점 고정 시스템으로 견고해진 획단 지지대를 통해 일정한 왕복 운동이 가능한 가변 관성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그 덕분에 견고성, 내구성, 신뢰성, 정확성을 보장한다. 여기에 비자성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장착한 자체 제작 칼리버 MT5400은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Swiss Official Chronometer Testing Institute, COSC)의 기준보다 더 나은 성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COSC의 인증 기준은 하루 허용 오차 범위를 −4초에서 +6초로 규정하고 있으나, 튜더는 완전히 조립된 시계를 기준으로 −2에서 +4초 이내의 오차 범위를 고집한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400의 또 다른 특징은, 일명 ‘주말에도 멈추지 않는(Weekend-Proof)’ 파워 리저브이다. 약 7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금요일 저녁에 시계를 문 후 월요일 아침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시간을 다시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다.



# 블랙 베이의 정수

블랙 베이 피프티-에잇 브론즈의 다이얼은, 블랙 베이 라인의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1950년대 투더 다이버 시계의 다이얼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1969년 카탈로그에서 선보인 후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로 알려진 투더 고유의 각진 형태의 시침을 장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크라운 가드가 없는 것과 작은 구멍의 바가 있는 러그도 1세대 투더 다이버 시계의 특징이다.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워치메이킹의 조화를 이룬 결과물은 클래식 시계의 단순한 재출시와는 거리가 멀다. 현대에 깊게 뿌리를 내린 블랙 베이는 60년 동안 이어져 온 투더 다이버 시계의 역사를 상징한다. 네오 빈티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업계 표준 이상의 제작 기술과 견고함, 신뢰성, 내구성, 정확성을 자랑한다.

## 투더 다이버 시계

투더 다이버 시계의 역사는 1954년 출시된 투더 최초의 다이버 시계, 레퍼런스 7922와 함께 시작되었다. 최대 100미터(330피트) 까지 방수가 가능했던 이 시계는, 이후 출시된 다양한 ‘다이버’ 라인의 시초가 된 제품이다. 합리적인 가격과 견고성, 신뢰성, 정확성을 토대로 한 브랜드의 툴 워치 철학을 반영했다. 이 투더 다이버 시계는 레퍼런스 7922 출시 이후 7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세계 최대 해군들을 비롯한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아왔다.

# 튜더 보증

1926년 한스 빌스도르프(Hans Wilsdorf)가 등록한 투더는 이상적인 시계를 만들고자 한 창립자의 비전에 따라 최고의 견고성, 내구성, 신뢰성, 정확성을 갖춘 시계를 제작해왔다. 투더는 이 경험과 뛰어난 시계 품질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제품에 5년 보증을 제공한다. 이 보증은 구입 시 보증 카드에 본인 명의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며, 수리 접수 시 유관 서류도 요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도 가능하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사이에 구매한 투더 제품은 기존 2년에 18개월이 추가되어, 총 3년 6개월 보증이 제공된다. 투더는 시계의 사용 환경과 모델에 따라 10년 마다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 튜더 소개

투더는 섬세한 스타일과 입증된 신뢰성, 그리고 우수한 품질의 시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이다. 투더의 역사는 롤렉스의 설립자 한스 빌스도르프(Hans Wilsdorf)가 ‘더 투더(The Tudor)’라는 상표를 등록한 192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그는 1946년 더욱 합리적인 가격대로 롤렉스에 버금가는 우수한 품질과 신뢰성을 갖춘 시계를 제공하고자 Montres TUDOR SA를 설립했다. 투더 시계는 견고함과 합리적인 가격대 덕분에 오래 전부터 육지, 심해, 빙하에서 과감한 모험을 하는 이들의 선택을 받아 왔다. 오늘날 투더 컬렉션에는 블랙 베이(Black Bay), 펠라고스(Pelagos), 1926과 로열(Royal) 등의 상징적인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투더는 2015년부터 다양한 기능과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자체 제작 매케니컬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다.



# BLACK BAY FIFTY-EIGHT BRONZE

REFERENCE 79012M

## 케이스

직경 39mm, 두께 11.9mm, 러그  
상하 꼭지점 길이 48mm, 그리고  
새틴-브러시된 브론즈 케이스

브론즈 컬러로 PVD 코팅된 스틸  
케이스 백

## 베젤

브론즈 소재의 한 방향 회전 베젤,  
60분 눈금이 새겨졌으며 양극  
산화된 '브론즈-브라운' 컬러의  
알루미늄 디스크

## 와인딩 크라운

튜더 장미 문양이 양각된  
스크류-다운 형태의 브론즈  
와인딩 크라운

## 다이얼

돔 형태의 '브론즈-브라운' 다이얼

## 크리스탈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 방수

수심 200미터(660피트)

## 브레슬릿

새틴-브러시된 리벳 브론즈  
브레슬릿

브론즈 버클이 장착된  
'브론즈-브라운' 패브릭  
스트랩 무상 제공

## 무브먼트

### 칼리버

제조사/제작 칼리버 MT5400

양방향 로터 시스템을 갖춘  
셀프-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 정확성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  
(Swiss Official Chronometer

Testing Institute, COSC)의 인증  
획득

### 기능

다이얼 중앙에 위치한 시, 분, 초침

시간을 맞출 때 초침이 정지하여  
정확한 시간 설정 가능

### 오실레이터

가변 관성 밸런스, 스크류를  
사용한 미세 조정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시간당 진동수: 28,800비트(4Hz)

### 직경

30.3mm

### 두께

5mm

### 보석수

27개

### 파워 리저브

약 70시간



스위스 가격

(VAT 포함)

CHF 4'300.-

패브릭 스트랩

무상 제공